

강진군, 장기체류·가족관광객 적극 유치한다

강진군문화관광재단, 오소스테이 개장 새로운 형태 위케이션 특화 숙박공간

강진군이 장기체류 관광객과 가족관광객 유치에 적극 나섰다.

28일 강진군에 따르면 강진군문화관광재단은 지난 25일 1주일 이상의 장기체류 관광객과 가족관광객 유치를 위한 생활관광의 새로운 형태의 숙박공간 오소스테이 개장식을 가졌다.

강진군 강진읍 동성리에 건물 2동으로 구성된 오소스테이(OSO STAY)는 일과 휴가를 함께 할 수 있는 위케이션 등과 가족단위의 여행객을 위한 가족동으로 돼 있다.

숙박에 필요한 객실과 휴가중에도 업무를 할 수 있는 위케이션 라운지, 8인 이하 사용가능 소규모 회의실, 별을 볼 수 있는 루프탑, 1주일 체류에 도움을 줄 세탁실과 공유주방 등 단순 숙박 외에도 다양한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다.

오소스테이(OSO STAY)는 단순한 숙박시설이 아닌 관광객 체류를 기반으로 관계인구 증대를 위한 시설로 조성됐다. 코로나 시대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로 각광받고 있는 위케이션과 강진의 대표 생활관광 프로그램인 '강진에서 일주일살기-푸소'를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된다.

오소스테이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강진군문화관광재단 임석 대표이사는 "오소스테이는 도시재생사업의 하나로 조성됐고, 적절한 활용을 위해 강진군문화관광재단이 위탁을 받아 운영과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소스테이는 현재 전국적으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위케이션, 특화 공간과 가족을 위한 시설로 구분해 운영하며, 지역 식음시설 제휴 공모를 통해 이용객들에게 주변시설



안내와 할인의 혜택을 제공, 지역 소비 유도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소스테이 이용방법은 오소스테이 홈페이지

지(osostay2023.modoo.at)를 통해 자세히 알아볼 수 있다. 문의는 강진군문화관광재단 마케팅팀(061-434-7996)으로 하면 된다.
강진=김영일기자

광주~완도 고속도로 2단계 구간 건설 속도

완도군의 숙원 사업인 광주~완도 고속도로 2단계 사업이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8월 23일 제4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예비 타당성 대상 사업 선정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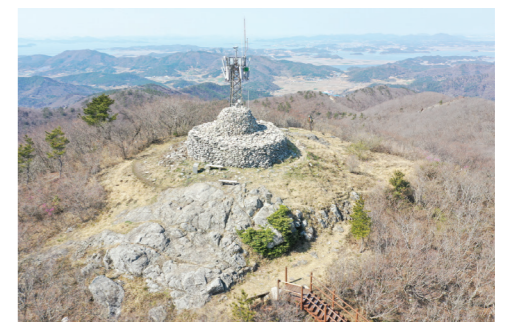
광주~완도 고속도로 1단계 사업은 광주 서구 벽진동에서 강진 성전까지로 총연장 51.11km, 총 사업비 1조 7,718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 중이다.

지난 2017년 8월 착공하여 2026년 준공될 예정이며, 2단계 구간은 강진 성전에서 해남 남창까지로 총연장 38.9km, 총 사업비 1조 5,965억 원이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이다.

그동안 완도군에서는 2단계 구간 조기 착수를 위해 중앙정부에 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 등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그 결과 제2차 고속도로건설 5개년 계획에 중점 추진 노선 및 국경 과제 반영 이후 국토교통부 투자 심사를 통과하고 이번 예타 대상 사업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완도=기동취재본부



진도군, '첨찰산 봉수 유적'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예고

진도군 의신면 첨찰산 정상부에 위치한 '진도 첨찰산 봉수 유적'이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문화재청은 지난 25일 진도 첨찰산 봉수 유적을 포함, 16개 봉수에 대해 「제5로 직봉」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으로 지정 예고했다.

봉수 유적이란 요새 기능에 중점을 둔 조선시대의 중요 군사·통신시설로서 그 시대의 군사·통신제도를 보여주며 조선왕조실록을 비롯한 각 문헌에 기록됐다.

특히 진도 첨찰산 봉수는 서해와 남해를 잇는 곳에 위치해 왜구의 침투 감시에 탁월한 위치에 임지해 있다.

최종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지정은 30일간의 예고기를 거쳐 오는 10월 중 지정 고시될 예정이다.

첨찰산 봉수 유적이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으로 지정되면 몽골의 침략에 대항하기 위해 쌓은 진도 용장성과 진도 남도진성에 이어 진도군의 세 번째 사적이 된다.

진도=조상용기자

해남군, 공중화장실 비상안심벨 및 안심스크린 설치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성범죄 긴급상황 신속대응

해남군은 공중화장실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땅끝관광지, 우수영관광지 등 다중 이용 공중화장실에 비상 안심벨 48개소와 안심스크린 69개소를 설치했다.

비상안심벨은 긴급 상황 발생시 여자화장실에 설치된 안심벨을 누르거나 "살려주세요"와 같은 특정 단어를 인식해 강력한 경보

와 함께 외부에 설치된 경광등이 점멸되고, 경찰서 112상황실과 음성통화를 통해 즉각적으로 범죄나 안전사고에 대응할 수 있다.

또한 안심스크린은 화장실 칸막이 하단부 공간을 막아 불법 촬영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장치이다. 최근 휴대전화를 이용한 공중 화장실 내 불법촬영 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안심스크린으로 설치로 이용객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남=기동취재본부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중화장실 비상안심벨, 안심스크린 설치를 확대해 범죄와 사고로부터 안전한 해남군을 만들겠다"며 "경찰서에 신속히 연락하기 위한 장비이니 긴급한 상황에 사용할 수 있도록 장난이나 불필요한 사용은 자제하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한편 해남군은 공중 화장실내 불법촬영을 방지하기 위해 매 분기별로 불법촬영 카메라 탐지기를 이용하여 불법기기 설치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장흥군, '웰니스 관광 활성화' TF 회의 개최

일과 삶의 균형을 찾는 웰니스 관광도시 '어머니 품 장흥'

고 전했다.

'웰니스 관광 활성화 TF'는 조석훈 부군수를 단장으로 웰니스 관광을 장흥군 미래 성장 동력 사업으로 역점 추진하기 위해 지난 3월 구성됐다.

이번 회의는 '웰니스 관광 활성화 추진 기본계획', '웰니스 프로그램 운영현황 및 연관사업 추진상황', '연계 발전방안 및 대표 콘텐츠 발굴', '팜투어 및 기획홍보 방안'에 대한 발표와 토론 순으로 진행되었다.

장흥군은 정남진 판백 숲 우드랜드 '치유의 숲', 원광대학교 장흥통합의료병원 '마음건강치유'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

'마음건강 치유' 프로그램의 경우 올해 11월 까지 참가 신청이 마감되며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이에 따라 체질맞춤 힐링 음식, 생약초 테라피&뷰티, 천관산 H.U.G 프로젝트를 연계하여 웰니스 관광 분야를 더욱 활성화할 계획이다.

조석훈 장흥군 부군수는 "장흥이 보유하고 있는 우수한 웰니스 자원과 사업 연계로 지친 몸과 마음을 다독이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힐링 도시 '어머니 품 장흥'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흥=김도영기자



장흥군에서는 22일 관·학·연 전문가가 참여한 '웰니스 관광 활성화 TF 회의'를 개최했다

전라남도 미래를 이끌어갈 히든카드!

세계의 중심으로! 풍요로운 일자리로! 아름다운 미래 가치로!
전남의 미래가 새롭게 펼쳐집니다!